민 요

차 례

1. 한글 가르치는 노래
2. 김 매는 소리
3. 기와 만드는 노래
4. 노동요
5. 홍겨울 때 부르는 노래
6. 오돌또기
7. 성주풀이

대부분 주민들이 기계화된 농업환경과 재배 작물의 변화로 노동요를 부르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사라진 탓에 노동요에 대해서는 많은 소리를 채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오래전부터 기와를 굽는 고장으로 유명해 그에 대한 민요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탐라문화제에서 보여준 "즈록물 기와역시"를 통해 몇 가지 소리를 채록할 수 있었다.

1. 한글 가르치는 노래

가갸거겨 가을바람 들어올 때에
고교구규 고요히 기나가도다
나냐너녀 나의 가슴 쓰라릴 때에

노뇨느뉴 노래로만 기다립니다
다다뎌뎌 다루에서 부르는 노래
도됴두듀 돌아보니 아무도 없네
라랴러려 나비는 어디로 가나
로료루류 노래로만 기다립니다
마먀머며 마음대로 못하는 이세상
모묘무뮤 모다나 모여 살아 봅시다
바뱌버벼 방울방울 떨어진 눈물
보뵤부뷰 보따리에 쌓아뒀다가
아야어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요우유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자쟈저져 자에긴 어디로 가나
조죠주쥬 조용히 기다려나 보자
차챠처쳐 차침차침 가까운 이밤에
초쵸추츄 초저냑인 비가 옵니다
카캬커켜 카암캄한 어두운 이 밤에
코쿄쿠큐 코웃소리로 잠을 잡니다
하햐허혀 하안 숨만 쉬는 이때에

<제보자: 이윤화(좌, 78세 · 여), 이연명(우, 75세 · 여)>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부족해 고산에 있는 학교까지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 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애들을 가르쳤는데 그 때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한글을 가르쳤다고 한다.

2. 김 매는 소리

어기녀랑 서아데아 곱은 새로 여어멍 가자
앞인 보니 태산이오 뒤엔 보니 평지래라
앞이는 곤나장 앚안 혼저 오랜 손을 친다
누가 곧든 나은 깨로 새로 굽은 새로 여어멍 가자
어가 둥실 방아로구나

이 지역주변은 마늘밭이 많은데 밭에서 일을 하고 김을 맬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제보자: 양기원(84세 · 여)>

3. 기와 만드는 노래

어야 ~ 홍
어야 ~ 홍
우리 산양민덜 에헤야 궐력을 합세다
우에 사토랑 에헤야 거둬나 가시고
석자 오칠 에헤야 깊은 땅속에
자갈랑 골랑으네 에헤야 낱낱이 가리면서
황토 백토 에헤야 자갈만 팝세다

흙을 파세나 에헤야 무엇을 할껀고
청기와 황기와를 만들어서 에헤야 집을 지으리다
청기와 집을 지어서 에헤야 조상님을 모시고
천초만년을 에헤야 행복을 누리리다
이제 저제는 에헤야 다파졌수다
물무쉬덜 이러당 에헤야 실어나 갑세다
<제보자: 박성희(74세 · 남)>

이 지역에서 기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렀던 노래로, 그 과정을 5부분으로 나누어 불렀다한다. 처음은 선소리로 권력소리, 다음으로 무쉬 모는 소리, 흙 다지는 소리, 기와 나르는 소리, 마지막으로 일을 다 끝낸 후에 하는 성주풀이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이 노래는 선소리에 해당하는 소리로 사람들의 힘을 북돋우기 위한 권력소리이다.

4. 노동요

어기누라 사대야겨
앞멍에는 들어오라
뒷멍에는 무러나라
앞이가는 놀농세야
뒤에오는 들극바리

<제보자: 현기화(90세 · 여)>

이 지역주변은 마늘밭이 많은데 밭에서 일을 할 때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5. 흥겨울 때 부르는 노래

하르방 할망 정들 적에는 둥어리만 긁어도 정이 들고
홀아방 홀어멍 정들 적에는 막걸리 한잔에도 정이 들고
처녀 총각 정들 적에는 풀보리 밭에서 정이 들고
<제보자: 양기원(84세 · 여)>

예전 이 지역 사람들이 잔치를 한다거나 술을 마실 때 흥을 돋우기 위해 했던 소리로 전해지고 있다. 아직도 흥에 겨운 상황에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 사이에서 불리고 있다.

6. 오돌또기

오돌또기 저기 춘향이 나온다
달도 맑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둥그데 당실 둥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머리고
달도 맑고 내가 머리로 갈꺼나
한라산 허리에 시름이 신속 마란속
서귀포 바다에 해녀가 듬숭 만숭
둥그데 당실 둥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머리고
달도 밝고 내가 머리로 갈거나
가면은 가고요 말면은 말았지
초신을 신고서 시집을 가랜 말이우꽈
둥그데 당실 둥그데 당실 여도 당실 연자 머리고
달도 맑고 내가 머리로 갈이거나

<제보자: 이연명(좌,75세 · 여), 고암보(우,65세 · 남)>

제주도 전 지역에서 불리어지는 민요로, 처음에는 홍을 돋우기 위해 불리어지다가 점차 노동요적인 성격도 갖게 되었다.

7. 성주풀이

영등산에 넋둘낭 비정
어 허 ~ 야
영등산에 넋둘낭 비정
어 허 ~ 야
금소낭 비어당 대들보 허고
영등산에 넋둘낭 비정
족은 소낭 끊어당 소쿠만들고
영등산에 넋둘낭 비정
쑥대낭 비어당 추녀살이 허고
영등산에 넋둘낭 비정
굵은 낭 고분도리 허고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우알 고든낭 올라다가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산모로 상도우 만들어놓고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그럭저럭비당 개려어나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젊은 성주 되었구나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말년 성주 되었구나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이집 지성 삼년이면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아들은 나면 효자로다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딸은 나면 열녀로다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쉐는 지루난 황쉐로다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물은 지루난 백마로다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개는 지루난 백구로다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돍은 키우난 봉황이여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영둥산에 넋둘낭 비게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요만 허면 철영성주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말년 성주 되었구나
영둥산에 넋둘낭 비정

<제보자: 고방춘(68세 · 남)>

성주풀이는 집을 지은 후에 부르는 민요로서 부흥하길 기원하는 마음에서 불렀다고 한다. 제주도에만 있는 문전제도 성주풀이를 통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기능이 있었다.

■ 조사자 : 현민철(04), 김유정(06), 김진옥(06), 김민욱(08)